글로벌 이슈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원인과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이아름 연구원

■ Financial Times(FT)는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급락에 따른 충격이 유로지역[1]과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함.

-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1일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하향 조정함.
  -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2015년 8월 10일 6.12위안에서 11일 6.23위안(전일대비 1.9% 상승), 12일 6.33(1.6%), 13일 6.40(1.11%)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4% 급락함.
- 중국 위안화 절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중국과 최대 교역국인 유로지역과 일본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중국 정부가 수출 경기 부양 및 위안화 국제화, 급격한 외환보유액 감소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2]

- 중국 정부는 2015년 수출 부진을 개선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3] 중국 위안화 가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2/4분기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였고, 2015년 7월에는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하며 축소폭이 확대됨.
-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편입 가능성[4]을 앞두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1) 유로화 사용 19개국.
2) 중국 인민은행은 추가 절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5~10%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IMF도 이번 중국 위안화 절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권고함.
3) LA타임스는 중국이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로 수출 부진을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디플레이션 압박은 소폭 완화될 것으로 진단함.
4) IMF는 현재 SDR 편입 기준을 검토하면서 위안화 편입 여부를 검토 중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으며, 추가 위안화 절하 가능성도 상존함.

- 또한 중국의 보유 자산 평가 손실, 외국인 자금의 중국 이탈,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유로화와 엔화 가치하락에 따른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경제의 불안 등 위안화 약세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중국 위안화 투기에 대한 기대를 소멸시켜 투기 세력들을 중국 외환시장에서 배척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한편,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5]을 앞두고 환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함.

- 중국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앞서 환율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행한 것으로 진단함.

■ 이번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는 유로지역과 일본 등 주요국을 비롯하여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같은 시기 달러화 대비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상승하였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유로지역과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는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일본의 수입 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우려됨.
-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5년 8월 19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화인 동화 가치를 1% 평가절하하였고 환율밴드를 2%에서 3%로 확대함.
  - 베트남 중앙은행은 동화 가치를 달러당 2만 1,673동에서 2만 1,890동으로 약 1% 평가절하함.

■ 추가 위안화 평가절하 충격에 따른 신흥국 통화 절하 효과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원/위안 환율 급락을 방지해야 함.

(FT 등)

5)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015년 9월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함.